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6-03호 / 2월 14일

최근 중국의 대외무역 동향과 향후 전망

1. 2005년 중국의 대외무역 동향

가. 수출입 증가세 둔화

- 2002년 이후 고성장세를 지속하던 중국의 수출입 증가세가 2005년 들어 예년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 2005년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28.4%, 17.7%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 35.4%, 35.8%에 비해 상당히 둔화됨.

<표 1>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	249,240 (27.7)	266,661 (7.0)	325,642 (22.1)	438,473 (34.6)	593,647 (35.4)	762,327 (28.4)
수입	225,095 (35.8)	243,567 (8.2)	295,303 (21.2)	413,096 (39.9)	560,811 (35.8)	660,222 (17.7)
무역수지	24,145	23,094	30,339	25,377	32,836	102,105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중국해관통계

- － 2005년 분기별 수출 증가율은 34.7%, 30.9%, 29.1%, 21.7%이며 2004년 분기별 수출 증가율은 34.1%, 37.1%, 34.7%, 35.6%이었음.

- 2005년 분기별 수입 증가율은 12.2%, 16%, 19.6%, 22.1%이며 2004년 분기별 수입 증가율은 42.1%, 42.9%, 30.1%, 30.4%로서 수입 증가율의 둔화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나. 주요지역별 수출입 동향

- 2005년 중국의 최대 교역시장은 EU로서 중국의 對EU 수출입 규모는 2004년에 비해 22.6% 증가한 2,173.1억 달러를 기록함.
- 중국의 제2위 교역상대국은 미국으로 2005년 중국의 對미 수출입은 전년대비 24.8% 증가한 2,116.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844.5억 달러(전년대비 9.9% 증가)를 기록한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아세안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2005년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함.
- EU, 미국, 일본 등 중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세는 모두 둔화되었는데, 2005년(1/4분기~3/4분기) 기준 對미 수출입은 전년동기 대비 9.6% 포인트, 對일본 수출입은 17% 포인트, 對EU 수출입은 13% 포인트 감소함.

다. 무역수지 구조

- 2005년 중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비해 크게 떨어진데 힘입어 2004년 대비 무려 세배 늘어난 약 1,020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함.
-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EU 및 일부 개도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마찰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이와 반면 중국은 2005년에도 한국(417.1억 달러), 일본(164.6억 달러), 아세안(196.2억 달러)과는 여전히 무역적자 상태를 유지함. 이 가운데 한국이 중국 무역적자분의 53.6%를 차지하고 있음.

2. 중국의 수출입 증가세 둔화 요인

- 2005년 들어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세가 둔화된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가. 세계 주요 경제권의 성장둔화

- 미국, EU, 일본 등 중국 주요 교역상대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세를 억제한 것으로 보임.
 - 2005년 미국경제 성장률은 3.5%로 2004년 4.2%에 비해 0.7%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2004년 2.4%의 성장률을 보였던 EU 경제도 2005년에는 2% 이하의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2005년 일본 경제 역시 2004년 성장률(1.7%)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나. WTO 가입으로 인한 무역확대 효과 감소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우호적인 무역환경에 힘입어 중국의 수출입은 2004년까지 고성장세를 지속함.
 - 2001~2004년 동안 중국의 수출입은 연평균 24.9%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1996~2000년의 10.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
- 그러나 2005년 들어 EU,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교역파트너와는 물론 기타 개도국과의 통상마찰이 격화됨으로써 중국의 무역여건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됨.

다. 수입증가율의 대폭 둔화

- 중국 정부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 나타난 과잉설비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진정정책 및 투자억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됨.

라. 중국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 2005년 중국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7.21)으로 인해 미미하나마 수출 증가세가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됨.

- 중국의 12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8.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0월에 비해 11.5% 포인트 하락한 수준임.

3. 2006년 중국의 대외무역 향방

가. 세계경제 성장 전망

□ 2006년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여파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중국의 대외무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 FRB는 2005년 말까지 연속 13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4.25%까지 상승시킴.
- 그러나 이같은 공격적인 금리인상 조치는 2006년 상반기 이후 중단 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경제는 2006년에도 3%내외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일본경제는 2005년 2%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일본의 거시경제정책이 긴축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유로지역 및 러시아 경제는 2006년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동남아시아지역, 중남미 및 아프리카 경제도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나.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전망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통상마찰은 중국의 대외무역의 향방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원활하게 해결하여 교역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이 낮아,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2006년 중국은 대외개방전략을 견지하는 동시에 국제경쟁력 강화, 수출상품 구조조정, 첨단기술제품 수출 확대, 자원성 제품수출 제한, 자원성 제품수출에 대한 자원세 징수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동아시아 등 기존시장 확보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신흥시장 개척에도 노력함으로써, 시장다원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¹⁾ **(完)**

1) 본자료는 石康, “2005年中国经济增长趋势:回顾与展望” (宏觀經濟研究院)에서 주로 발췌, 정리한 것임.